

복합레진 laminate veneer

부교수 조영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전치부의 순면에 광범위하게 발생된 탈회나 약제에 의한 심한 변색 및 마모증과 침식증 등에 의해 심미적 수복이 요구되는 임상적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결손부의 범위와 교합관계 및 인접치아와의 관계 등은 보철적인 또는 보존적인 수복중 어떠한 수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전치의 순면이 심하게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보존적인 수복방법중 하나로 전치의 순면 전체를 복합레진으로 수복하는 라미네이트 비니어 술식이 이용될 수 있다. 복합레진을 이용한 라미네이트 비니어는 제작과정에 따라 기공실에서 제작하는 간접법과 환자의 구강내에서 직접 제작하는 직접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치아의 삭제범위에 따라 부분

비니어(partial veneer)와 전체 비니어(full veneer)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법은 적은 수의 치아가 치료의 대상인 경우에 시행될 수 있으며, 간접법은 여러개의 치아를 동시에 치료해야 할 경우 이용된다.

본 문에서는 교정치료시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상악 측절치의 순면에 광범위하게 발생된 탈회부위(사진 1)를 구강내에서 직접 복합레진으로 수복하는 라미네이트 비니어 술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상악 측절치 순면의 치경부와 근,원심부의 탈회된 치질을 거친 round diamond bur로 삭제한다(사진 2). 이때 주의사항은 탈회된 부위가 치은연하로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치은변연부를 치은연하로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순면의 근,원심부를 삭제할



사진 1. 교정치료후 상악측절치 순면의 치경부와 근,원심부가 광범위하게 탈회된 모습



사진 2. 둥근 diamond bur로 탈회된 치질을 삭제하고 있는 과정



사진 3. Round end diamond bur로 순면의 건전한 법랑질을 삭제하고 있는 과정



사진 4. 산부식 처리후 상악측절치와 견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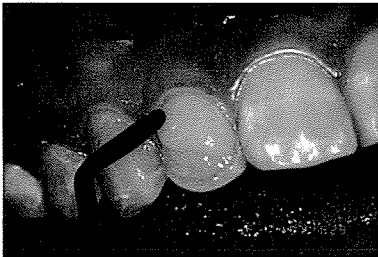


사진 5. 복합레진은 치경부에서 절단부 방향으로 taper하게 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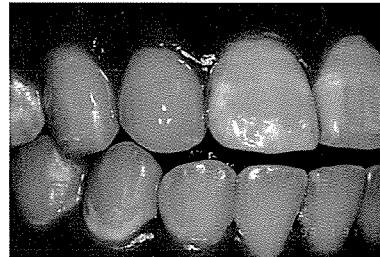


사진 6. 복합레진 라미네이트에 의해 수복이 완성된 상악측절치의 모습

때도 접촉점(proximal contact)이나 접촉면으로 확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상악 측절치의 순면을 광범위하게 삭제한 외형(outline form)상에 복합레진을 충전하게 되면 인접치질과의 색조 부조화로 인하여 심미적 문제가 발생되므로 건전한 순면의 법랑질을 동시에 삭제하여 수복하는게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순면의 법랑질 삭제는 절단부의 일부를 남겨 놓고 건전한 법랑질을 round end diamond로 삭제하며(사진 3), 삭제량은 법랑질 두께의 절반 정도가 되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bur를 이용하여 치은측과 절단측 및 인접면측의 변연에 명확한 finishing line을 형성하여야 한다.

순면의 삭제가 완료되면 치아를 깨끗이 세척하고 통법에 의해 삭제된 부위를 인산을 이용하여 산부식 처리하고(사진 4) 세척, 건조한 다음

접착제를 도포하고 광중합시킨다.

복합레진의 성형은 먼저 치은측 1/3부위에 gingival shade의 복합레진을 위치시킨 다음 중앙 1/3부위로 점차적으로 taper시키는 형태로 하며(사진 5), 나머지 부위는 incisal shade의 복합레진을 선택하여 중앙 1/3부위에서 gingival shade의 복합레진과 혼합되도록 성형하여 자연스러운 색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광중합된 복합레진은 고속의 finishing bur로 치아의 외형(contour)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고, 저속의 Sof-Lex discs로 세심한 마무리와 광택을 낸다.

사진 6은 교정치료후 광범위하게 탈회된 상악 측절치를 복합레진 라미네이트 비니어로 수복한 사진으로 심미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